

# 사건 중심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

조영미, 정남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ity of Event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Deliberate Ruminat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Young-Mi Cho, Nam-Woon Chung\*  
Dep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사건중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외상 후 성장(PT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사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을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외상 후 성장(PTG)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417명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사건중심성 척도(CES),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IES-R-K),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 사건 관련 반추 척도(ERRI), 특질 상위 기분 척도(TMMS)를 이용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건중심성, 의도적 반추, 정서인식명확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사건중심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이 각각 매개하는 두 개의 단순매개효과와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외상 관련 상담 장면에서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키고 정서 인식을 촉진시킴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줄이고 외상 후 성장(PTG)으로 이끄는 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entrality of event on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nd posttraumatic growth(PTG), and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417 adults for the period from March 12 to April 14, 2020 to assess each variables,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CES), the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IES-R-K), the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K-PTGI),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ERRI) and Trait Meta Mood Scale(TM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entrality of event, deliberate rumination,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Posttraumatic Growth (PT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ity of even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posttraumatic growth (PTG), two simple mediating effects mediated by deliberate ruminat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respectively, and a sequential mediating effect mediated by deliberate ruminat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sequentially. Through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reduc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nd lead to post-traumatic growth(PTG) by promoting deliberate rumination and promo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in trauma-related counseling scenes.

**Keywords** : Centrality of even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posttraumatic growth(PTG), deliberate rumination,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Corresponding Author : Nam-Woon Chung(Catholic Univ.)

email: woonee@hanmail.net

Received April 5, 2024

Revised May 2, 2024

Accepted May 3, 2024

Published May 31, 2024

## 1. 서론

### 1.1 연구배경

코로나 19와 같이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심리적 외상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삶에 가까이 존재한다. 국내 연구에서 성인의 71.9%가 일생 동안 하나 이상의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했으며 [1], 해외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을 보고한 응답자가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삶에서 외상은 불가피한 요소이다[2].

이와 같이 외상 사건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에 따른 기존 외상 진단 기준보다 외상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3]. Tedeschi와 Calhoun(2004)의 연구에 따르면, 외상 사건을 주관적으로 지각한 위기 사건이자, 부정적 심리 결과를 초래하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정의하였다[4]. 서영석 등(2012)은 외상 사건을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고, 경험하는 당사자 간의 자기개념 및 관계패턴, 대응기제 및 대처능력 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일 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건'으로 정의하였다[1].

외상 사건을 겪은 후 나타내는 반응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하는데 개인은 외상에 의해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경험한다. 일부는 외상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겪는으며 외상 사건과 관계된 침습적 사고를 반복하고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외상에 의해 매우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심리적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데[5] 이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고 한다. 여기서 성장이란 외상을 겪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통해 이전 수준의 적응 수준, 심리적인 기능 수준, 삶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6].

Tedeschi 등(1999)에 의하면,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은 외상 사건 초기에는 함께 존재하며 비슷한 경로로 유사하다고 한다 [7]. 또한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이론에 따르면, 외상을 겪은 개인에게 고통과 성장은 공존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외상 사건 후에 지속되는 고

통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이 외상 사건을 겪은 이후 기존의 핵심 신념이 도전을 받고 재검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8,9]. 이런 이유로 일부 연구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은 외상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도 한다[10].

위와 같은 점을 토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독립적으로 보기도 하는 연속적 과정으로 가정하였으며[11], 연속적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줄이고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로 이끄는 경로를 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사건중심성을 들 수 있다. 사건중심성은 개인이 특정한 사건 경험을 자신의 정체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2]. 외상적 사건에 대한 높은 사건중심성은 두 가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13,14]. 선행 연구에서 개인이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을 중심으로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향성인 사건중심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강력한 예측 변인이었다[12,15] 조명숙과 이영호(2011)의 연구에서도 사건중심성은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16]. 그러나, 한편으로 사건중심성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기도 하다[17-19]. 이처럼 외상에 대한 인지적 변인인 사건중심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일으키기도 하고,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가져오기도 하기에 Boals와 Schuettler(2011)가 언급했던 것처럼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이 될 수 있다[15].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킴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중심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도달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의도적 반추'이다. 외상 경험을 한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지적 도식이 파괴될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외상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다루며, 기존 도식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하여 반복되는 반추를 촉발시킨다고 하였다[20]. 침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경험하기 위한 선행과정으로 볼 수 있고, 높은 침습적 반추로 인해 지각되는 고통이 클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 또한 높아져, 의도적 반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21].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높은 침습적 반추가 감소되지 않고 의도적 반추로의 이행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다양한 부정적인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22]. 즉,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과정에서 높은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높은 침습적 반추가 필요하지만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이행되지 못하면 정서적인 고통과 부정적인 증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외상 연구에서는 인지뿐 아니라 정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인지적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서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며[23], 인지적 도식의 재건 과정뿐 아니라 정서 상태의 변화도 중요함이 강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4,25]. 이런 연구로 이다영(2017)은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을 모두 나타내는 변인인 정신화를 통해 사건중심성의 양면성을 살펴 보도록 고려하였으며 정세민(2018)은 인지적 정서조절을 조절 변인으로 하여, 사건중심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및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과의 관계를 보았다[26,27]. 이전의 연구들과 같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과정과 더불어 정서적인 과정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서는 인지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Goldman, 1995), 정서적 고통이 적절히 다뤄질 때 기존에 지닌 도식의 변화와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되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경험할 수 있다[28,29].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낮추고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예측하는데 인지적 측면과 더불어 정서적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30]. 선행 연구에서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표현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인 정서지능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예언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다[30]. 이러한 정서 지능의 기본이 되는 정서인식명확성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32].

본 연구를 통해서 외상 관련 상담 장면에서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키고 정서 인식을 촉진시킴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줄이고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이끄는 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연구 문제 1. 사건중심성, 의도적 반추, 정서인식명확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 문제 2. 사건 중심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를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하는가?
- 연구 문제 3. 사건중심성, 의도적 반추, 정서인식명확성, 외상 후 성장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 문제 4. 사건 중심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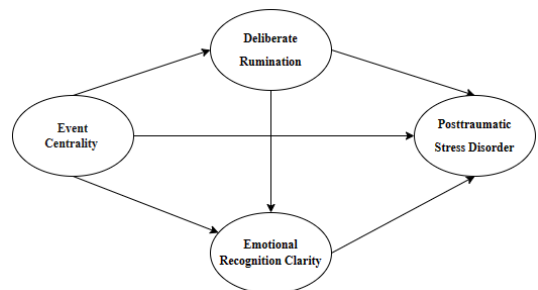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Design Mode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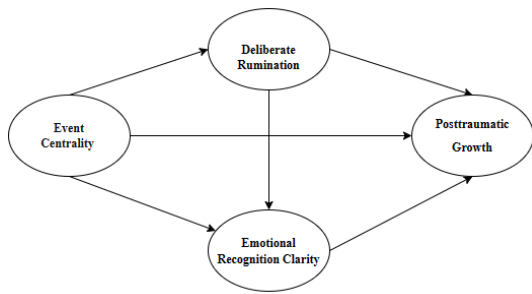


Fig. 2. Research Design Model  
(Posttraumatic Growth: PTG)

## 1.2 연구 방법

### 1.2.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으며, 승인 이후 연구를 실시하였다(승인번호:1040395-202002-25).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오프라인으로 46부, 온라인으로 376부, 총 422부의 설문 답변을 수집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5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후 총 41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37명(32.9%), 여성 280명(67.1%)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30세(SD=8.4)였다.

### 1.2.2 연구도구

#### 가. 한국판 사건 중심성 척도

Bernsten과 Rubin(2006)이 개발하고 조명숙, 이영호(2011)[31]가 국내 변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중심성 척도(Centrality of Event Scale-Korean Version; CES-k)를 사용하여 사건중심성을 측정하였다[14]. 외상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을 인지적으로 조직화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이후의 경험을 판단하는 참조 기준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삶의 이야기에서 어떤 전환점이 되며,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되는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32]. 총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방식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 5)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건중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명숙, 이영호(2011)에서는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 CES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판단 기준은 .900, 전환점은 .897, 정체성은 .878이었으며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4로 나타났다[14].

#### 나. 사건 관련 반추 척도

사건 관련 반추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민지원, 주혜선과 심기선(2013)[33]이 변안 및 타당화한 한국 사건 관련 반추 척도(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in Korean; K-ERR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와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반추 10문항만 사용하였다. 의도적 반추는 “나는 그 일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1=전혀 하지 않았다, 4=자주 했다)로 평정하였다. 안현의 등(2013)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alpha$ )는 .950이었고, 본 연구에서 ERI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32로 적절하였다.

#### 다. 한국판 특질 상위 기분 척도

Salovey 등(1995)이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34]가 변안 타당화한 한국판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특질 상위 기분 척도는 정서에 대한 주의 5문항,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 정서조절 기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이 타당화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4였다[32]. 본 연구에서 TMMS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09로 적절하였다.

#### 라.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

Horowitz와 Wilner 및 Alvarez(1979)가 개발하고, Weiss와 Marmar(1997)가 추가·보완한 IES-R 척도를 은현정 등(2005)[35]이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충격 척도 개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이하 IES-R-K)을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였다. 총 22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사건충격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은현정 등(2005)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Cronbach  $\alpha$ =.83으로 나타났

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가 .93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과각성 .85, 침습 .81, 회피 .87,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 해리증상 .67로 나타났다.

마.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등(200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34]. 척도는 총 16문항,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송승훈 등(2009)에서는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K-PTGI의 하위변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자기지각 .881, 대인관계 깊이 증가 .795, 영적관심 .740이었으며,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5로 적절하였다[36].

1.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와 IBM SPSS Amo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지표의 정규성과 연속성 및 모수 추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변인들을 측정하는데 활용된 측정지표들이 타당하게 구성개념을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2.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여섯째, 사건 중심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의 관계를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수행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행하였다. 팬텀 변인을 활용하여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2. 본론

2.1 기술 통계 및 변인들이 상관관계

Table 1에 제시한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을 확인해보면, 사건중심성,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은 서로 정적상관을 보였고, 사건중심성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 보았을 때,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주요 변인들의 평균은 1.61~ 3.53 점이고, 외상 후 장애는 1.61로 가장 낮았으며, 정서인식명확성은 3.53으로 가장 높았다.

2.2 측정모형 검증

2.2.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사건중심성, 의도적 반추, 정서인식명확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대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본 측정모형에서의 요인 부하량은 사건 중심성이 .863~.912, 의도적 반추가 .903~.911, 정서인식명확성이 .742~.86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772~.912으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easurement Variables (N= 417)

	1	2	3	4	5
1. Event Centrality	1				
2. Deliberate Rumination	.621**	1			
3.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200**	.005	1		
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549**	.381**	-.335**	1	
5. Posttraumatic Growth	.323**	.546**	.221**	.143**	1
Average	2.9394	2.8127	3.5383	1.6167	2.8597
Standard Deviation	.92471	.76461	.62050	.91706	.96805
Skewness	-.009	-.298	-.289	.032	-.329
Kurtosis	-.621	-.610	-.131	-.1069	.03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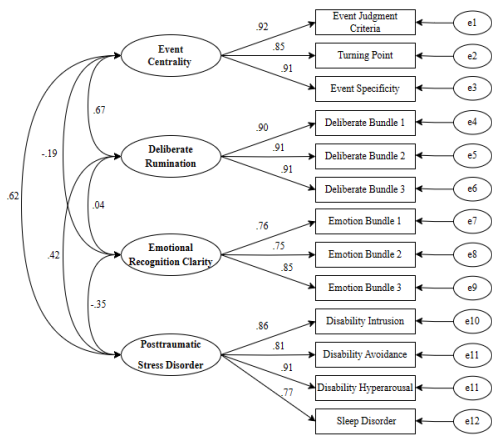


Fig.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able 2. The Goodness-of-fit Index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PTSD) (N=417)

$\chi^2$	df	p	TLI	CFI	RMSEA
245.873	59	.000	.940	.955	.087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B	$\beta$	S.E.	t
Event Centrality	Judgment Criteria	1.000	.920		
	Turning Point	1.035	.849	.041	25.107***
	Identity	.981	.907	.034	28.876***
Deliberate Rumination	Deliberate Rumination 1	1.000	.904		
	Deliberate Rumination 2	.990	.906	.035	28.361***
	Deliberate Rumination 3	.944	.913	.033	28.800***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1	1.000	.760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2	1.135	.755	.079	14.339***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3	1.155	.849	.077	15.00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vasion	1.000	.863		
	Avoidance	.959	.810	.047	20.529***
	Hyperarousal	1.027	.912	.041	24.865***
	Sleep Disorder	.726	.772	.038	19.021***

\*\*\*p<.001.

### 2.2.2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사건 중심성, 의도적 반추, 정서인식명확성,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대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본 측정모형에서의 요인부하량은 사건 중심성이 .863~.912, 의도적 반추가 .903~.911, 정서인식명확성이 .742~.863,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가 .571~.821으로 모두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4. Fit Indice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PTG)

$\chi^2$	df	p	TLI	CFI	RMSEA
285.25	58	.000	.917	.938	.097

### 2.3 구조모형 검증

#### 2.3.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사건중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구조경로분석 결과는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모형은 Fig.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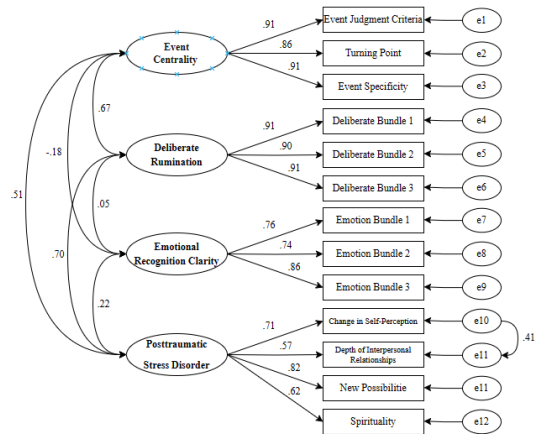


Fig. 4.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easurement Model



Table 5.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i>B</i>	$\beta$	<i>S.E.</i>	<i>t</i>
Event Centrality	Judgment Criteria	1.000	.907		
	Turning Point	1.067	.863	.042	25.201***
	Identity	1.001	.912	.036	28.044***
Deliberate Rumination	Deliberate Rumination 1	1.000	.910		
	Deliberate Rumination 2	.980	.903	.034	28.693***
	Deliberate Rumination 3	.935	.911	.032	29.225***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1	1.000	.758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2	1.118	.742	.079	14.176***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3	1.176	.863	.079	14.919***
Posttraumatic Growth	Change in Self-Perception	1.000	.711		
	Depth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845	.571	.064	13.254***
	New Possibilities	1.298	.821	.096	13.486***
	Spirituality	1.308	.620	.118	11.086***

\*\*\* $p < .001$ .

Table 6. Results of the Structural Path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ath	<i>B</i>	$\beta$	<i>S.E.</i>	<i>t</i>
Event Centrality	→ Deliberate Rumination	.582	.669	.040	14.605***
Event Centrality	→ Emotional Clarity	-.266	-.392	.053	-5.033***
Event Centrality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542	.505	.059	7.707***
Deliberate Rumination	→ Emotional Clarity	.238	.305	.060	3.956***
Deliberate Rumination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20	.097	.040	1.575
Emotional Clarity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414	-.262	.065	-5.418***

\*\*\* $p < .001$ , \*\*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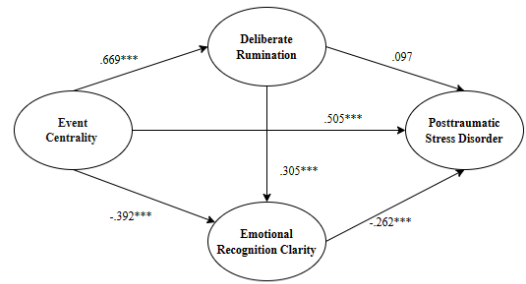


Fig. 5. Final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최종모형을 살펴보면 사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 ( $\beta=.669$ ,  $p < .001$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적, 정서인식명확성( $\beta=-.392$ ,  $p < .001$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정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beta=.505$ ,  $p < .001$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중심성이 커질수록 의도적 반추가 커지고, 정서인식명확성이 증가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의도적 반추에서 정서인식명확성( $\beta=.305$ ,  $p < .001$ )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도적 반추를 증가할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beta=.097$ )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beta=-.262$ ,  $p < .001$ )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부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정서를 더 명확히 인식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 2.3.2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사건중심성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구조경로분석 결과는 Table 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모형은 Fig. 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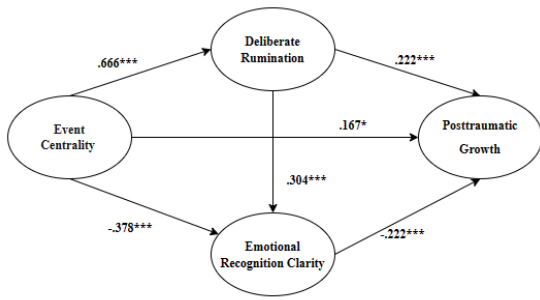


Fig. 6. Final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TG)

Table 7. Results of Structural Path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PTG)

Path	B	$\beta$	S.E.	t
Event Centrality → Deliberate Rumination	.580	.666	.040	14.620***
Event Centrality → Emotional Clarity	-.259	-.378	.053	-4.887***
Event Centrality → Post-Traumatic Growth	.147	.167	.059	2.501*
Deliberate Rumination → Emotional Clarity	.240	.304	.060	3.968***
Deliberate Rumination → Post-Traumatic Growth	.585	.581	.040	14.620***
Emotional Clarity → Post-Traumatic Growth	.284	.222	.065	4.355***

\*\*\* $p < .001$ , \*\* $p < .01$ .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의 최종 모형을 살펴보면 사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 ( $\beta = .666$ ,  $p < .001$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적, 정서인식명확성( $\beta = -.378$ ,  $p < .001$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적,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beta = .167$ ,  $p < .05$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중심성이 커질수록 의도적 반추가 커지고, 정서인식명확성은 증가하고,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는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의도적 반추는 정서인식명확성( $\beta = .304$ ,  $p < .001$ )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beta = .581$ ,  $p < .001$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도적 반추를 더 할수록 정서 인식을 더 명확하게 하며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 $\beta = .222$ ,  $p < .001$ )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정서를 더 명확히 인식할수록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2.4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 2.4.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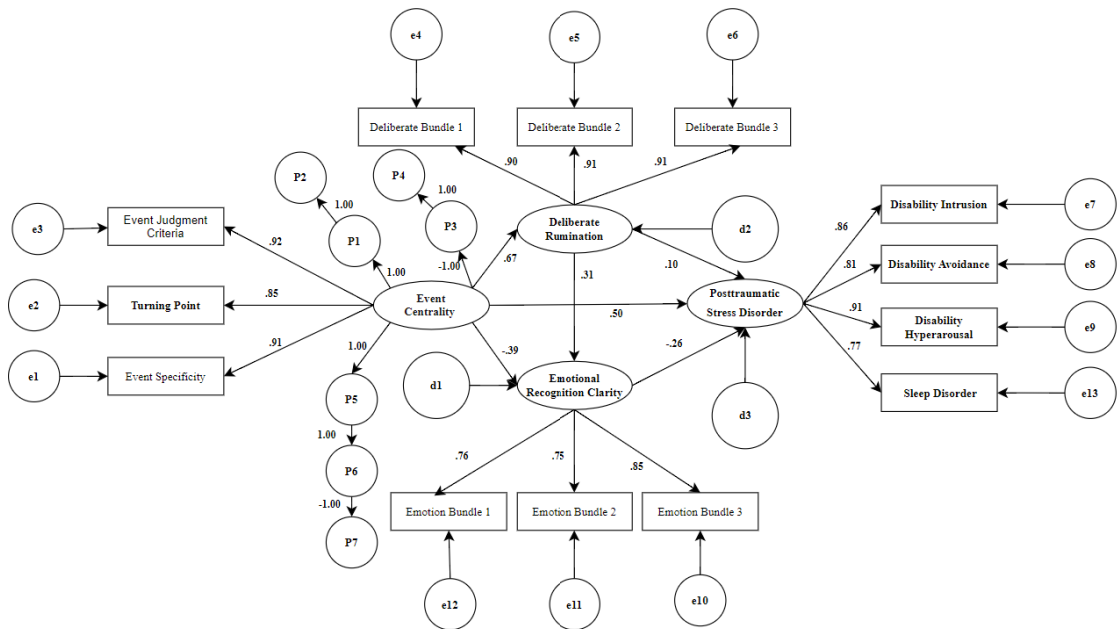


Fig. 7. Structural Model Including Phantom Variables



최종모형에서 사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을 매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Shrout와 Bolger, 2002). AMOS에서 매개 변인이 둘 이상일 때는 각 매개 변인을 통한 각각의 간접효과가 아니라 이를 합산한 효과인 총 간접효과만 검증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매개 변인이 만들어내는 특정간접효과들, 즉 2개의 단순 매개효과와 1개의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각각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인을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이 방식은 구조모형의 개별 매개경로를 반영하는 팬텀변인을 만들고 각 매개경로의 간접효과를 단일계수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사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향하는 경로는 p1과 p2, 정서인식명확성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향하는 경로는 p3와 p4,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향하는 경로는 p5와 p6, p7 팬텀변인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팬텀변인을 포함한 구조모형은 Fig. 7과 같다. 이후 5000번의 부트스트랩 반복 추출을 통하여 생성된 부트스트랩 표본을 사용해 특정간접효과들을 검증하였다.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Results of the Mediation Effect Testing in the Final Model

Path	Indirect Effect	p	95% Bias-Corrected CI	
			Lower	Upper
			Event Centrality → Deliberate Rumination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070
사Event Centrality → Emotional Clarity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10	.000	.058	.193
Event Centrality → Deliberate Rumination → Emotional Clarity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057	.000	-.108	-.028

최종모형에 포함된 매개 경로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가는 경로이고, 두 번째는 사건중심성이 정서인식명확성을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가는 경로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로는 사

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가는 경로이다. 첫 번째 경로는 95%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두 경로는 모두 95%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건중심성은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정서인식명확성을 매개로 하여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도적 반추를 높이고 정서인식명확성을 높이는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4.2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최종모형에서 사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을 매개로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Shrout와 Bolger, 2002). 사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향하는 경로는 p1과 p2, 정서인식명확성을 통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향하는 경로는 p3와 p4,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향하는 경로는 p5와 p6, p7 팬텀변인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팬텀변인을 포함한 구조모형은 Fig. 8과 같다. 이후 5000번의 부트스트랩 반복 추출을 통하여 생성된 부트스트랩 표본을 사용해 특정간접효과들을 검증하였다. 결과는 Table 9과 같다.

최종모형에 포함된 매개 경로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가는 경로이고, 두 번째는 사건중심성이 정서인식명확성을 거쳐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가는 경로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로는 사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가는 경로이다. 세 가지 경로 모두 95%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고,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건중심성은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을 각각 매개로 하여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도적 반추를 높이고 정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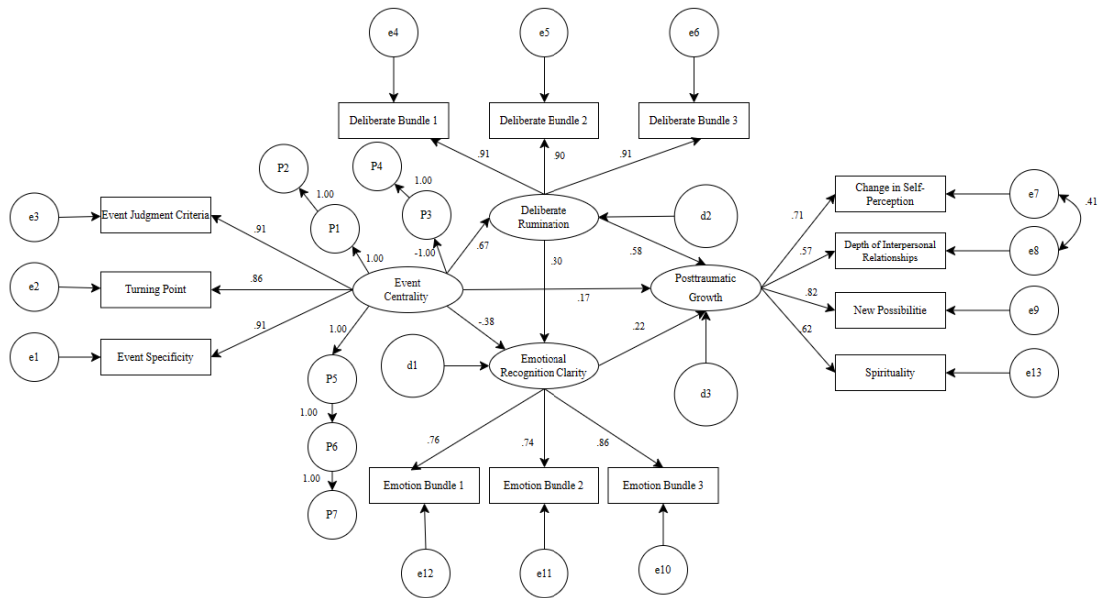


Fig. 8. Structural Model Including Phantom Variables

명확성을 높이는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Results of Mediation Effect Testing in the Final Model

Path	Indirect Effect	p	95% Bias-Corrected CI	
			Lower	Upper
Event Centrality → Deliberate Rumination → Post-Traumatic Growth	.340	.000	.243	.454
Event Centrality → Emotional Clarity → Post-Traumatic Growth	-.074	.001	-.152	-.027
Event Centrality → Deliberate Rumination → Emotional Clarity → Post-Traumatic Growth	.040	.001	.014	.087

###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건중심성과 의도적 반추, 정서인식명확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중심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건중심성, 의도적 반추, 정서인식명확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먼저 사건중심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r=.549, p<.01$ )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r=.143, p<.01$ )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14,26]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사건중심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모두와 상관이 높으며 이는 사건중심성의 양면성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사건중심성과 의도적 반추의 정적 상관( $r=.546, p<.01$ )은 높은 사건중심성이 의도적 반추를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38]. 사건중심성이 높으며 그 사건에 대하여 반추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의도적 반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사건중심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이 부적 상관( $r=-.200, p<.01$ )이며, 사건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외상적 사건의 특징상 부정적 사고와 감정에 압도된 상태이므로 정서를 명확히 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지영(2014), 조한로(2017)의 연구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이는 사건중심성이 높을 때 정서를 먼저 명확히 인식하기보다는 사건에 대해 인지적 과정인 의도적 반추를 통한 후 그 사건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r=.381, p<.01$ )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r=.546, p<.01$ )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관련이 있고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과 관련 변인이라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39].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r=-.335, p<.01$ )를 부적 상관,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r=.221, p<.01$ )은 정적 상관으로 이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 성장에 이르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40]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연구자가 설정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적절한지 검증하였다. 대부분의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또한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이었고, 구조모형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직접 경로가 유의했다.

사건중심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건중심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이 각각 매개하는 두 개의 단순매개효과와 의도적 반추와 정서인식명확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 사건을 중심으로 높아진 사건중심성은 의도적 반추를 증가시키고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이끈다. 또한 높은 사건중심성은 정서인식명확성을 낮추며, 낮아진 정서인식명확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증가시키고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 PTG)를 낮춘다. 반면에 순차적 매개를 보면, 높은 사건중심성은 의도적 반추를 증가시키고 정서인식명확성을 높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감소되며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외상을 경험한 개인에게 인지적, 정서적 두 변인이 외상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높은 사건중심성은 인지적 변인의 경로와 정서적 변인의 경로를 각각 보았을 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높은 사건중심성은 인지적, 정서적 경로로 순차적으로 이행되어졌을 때 좀 더 장애는 낮추고 성장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지영(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데[14], 정서적 경로와 인지적 경로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의도적 반추가 정서적 경로를 통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건중심성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유의한 변인[17,28] 으로서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모두를 의미 있게 예측하는, 양면적 특성으로 어떤 변인을 통해서 어떤 경로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사건중심성과 매개 변인과의 관계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를 함께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의 정서- 인지 처리 모델[24]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이론적인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으며, 보다 더 구체적인 정서, 인지, 행동적 기제의 통합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인지적, 정서적 변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외상 사건을 겪고 어려움이 있는 성인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장면에서 인지적 처리 과정과 정서적 처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내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줄이고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이끌 수 있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연구의 표집이 한정되었으므로, 이를 모든 일반 성

인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므로 피험자들의 방어 또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양적 연구방법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은 지속적이고 변화 가능한 역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특정 동일 시점에서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단 연구 설계나 실험 설계를 통해 성장 과정에 따른 관련 변인들의 관계와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둘은 연속적인 과정이라 가정을 하였으나, 개인에 따라서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가지 못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머무르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Young Seok Seo, Hwajin Cho, Ha Yan Ahn, Jungsun Lee (2012).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by South Koreans: Types and Preval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3), 671-701.
- [2] Frazier, P., Anders, S., Perera, S., Tomich, P., Tennen, H., Park, C., & Tashiro, T. (2009). Traumatic event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Prevalence and associated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3), 450-460.
- [3] Park, AeShil (2016). The Influence of Posttraumatic Cognition on Posttraumatic Growth: Testing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KC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5), 181-200. DOI: <https://doi.org/10.15703/KJC.17.5.201610.181>
- [4]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The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y Inquiry*, 15(1), 1-18.
- [5] Ran Song, The Effect of Event Centrality on Posttraumatic Growth: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through Deliberate Rumin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DOI: <https://doi.org/10.33703/cbtk.2021.21.3.383>
- [6]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626-653.
- [7] Calhoun, L. G., & Tedeschi, R. G. (1999).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8]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Solomon, D. T. (2010). Posttraumatic growth and depreciation as independent experiences and predictors of well-be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3), 151-166.
- [9] Cryder, C. H., Kilmer, R. P.,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6). An exploratory study of posttraumatic growth in children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 65-69. DOI: <https://doi.org/10.1037/0002-9432.76.1.65>
- [10] Hall, B. J., Hobfoll, S. E., Canetti, D., Johnson, R. J., Palmieri, P. A., & Galea, S. (2010).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PTSD: A national study of jews and arabs following the 2006 israeli-hezbollah wa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8(3), 180-186.
- [11] Kumju Lim, Eunjung Kim (2020) . Stress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Mediating Effect of Meaning Focused Coping and Avoidance Focused Coping. 2020, vol.11, no.1, pp. 963-978 (16 pages)
- [12] Berntsen, D., & Rubin, D. C. (2006).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A measure of integrating a trauma into one's identity and its relation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219-231. DOI: <https://doi.org/10.1016/j.brat.2005.01.009>
- [13] Boals, A., Steward, J. M., & Schuettler, D. (2010).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posttraumatic growth by considering event centrality.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 518-533. DOI: <https://doi.org/10.1080/15325024.2010.519271>
- [14] Ji Young Lee., Yang, Eun joo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Style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Korean Association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v.18, no.2, pp.159 - 176 DOI: <https://doi.org/10.1007/s10880-019-09606-6>
- [15] Schuettler, D., & Boals, A. (2011). The path to posttraumatic growth versu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ntributions of event centrality and cop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16, 180-194. DOI: <https://doi.org/10.1080/15325024.2010.519273>
- [16] Moungh Sook Cho, Young Ho Lee (2011). A Validation Study of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Korean Vers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3), 763-774.
- [17] Boals, A., Steward, J. M., & Schuettler, D. (2010).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posttraumatic growth by considering event centrality. *Journal of Loss and*

- Trauma, 15, 518-533.
- [18] Boals, A., & Schuettler, D. (2011). A double-edged sword: Event centrality, PTSD and posttraumatic growth.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5, 817-822. DOI: <https://doi.org/10.1002/acp.1753>
- [19] So Yoon Park, CHUNG, NAM WOON (2015).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ity of Event and Posttraumatic Growth. *KCA*, 16(5), 141-155. DOI: <https://doi.org/10.15703/KJC.16.5.201510.141>
- [20]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6).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 & 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pp. 3-23). Mahwah, NJ: Erlbaum.
- [21]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L., Vishnevsky, T., & Lindstor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DOI: <https://doi.org/10.1080/10615806.2010.529901>
- [22] Ah Reum Gwak, Kee Hwan Park, (2018) The Mediation Effects of Thought Control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vent-related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18, Vol. 4, No. 1, 69-89 DOI: <https://doi.org/10.15842/CPKJOURNAL.PUB.4.1.69>
- [23] Kyng Ji Kim, Chang, Hyun-A (2014). Research on Posttraumatic Growth in Korea: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KACOCT*, 14(2), 239-265.
- [24] Joseph, S., Murphy, D., & Regel, S. (2012). An affective-cognitive processing model of post- traumatic growth.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9(4), 316-325. DOI: <https://doi.org/10.1002/cpp.1798>
- [25] Roh Chi Kyung, Hong Hye Young,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Deliberate Rumination, and Problem-focused Coping in the linkbetween Resilience and Adversarial Growth, *KoreanJournalofCounseling* 2016, Vol.17, No.6, 1-20 DOI: <https://doi.org/10.15703/kjc.17.6.201612.1>
- [26] Lee, da-young, CHUNG, NAM WOON (2022). The Effects of Centrality of Event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 in Traumatized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Mentalization. vol.22, no.13, pp. 791-802 (12 pages)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13.791>
- [27] Se Min Jeong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ity of event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 : moderation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28]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om Books.
- [29] Groleau, J, M,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13). The role of centrality of events in posttraumatic di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rch, Practice, and Policy*, 5, 477-483. DOI: <https://doi.org/10.1037/a0028809>
- [30] Nan Mee Yang, Eun Kyoung Lea, Mi Kyoung Song, Dong Hun Lee (2015).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Traumatize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5, Vol. 16, No. 1, 175-197 DOI: <https://doi.org/10.15703/KJC.16.1.201502.175>
- [31] Myeong Sook Cho, Young-ho, Lee, A Validation Study of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Korean Vers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1, Vol. 30, No. 3, 763-774
- [32] Berntsen, D., & Rubin, D. C. (2006).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A measure of integrating a trauma into one's identity and its relation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219-231. DOI: <https://doi.org/10.1016/j.brat.2005.0>
- [33] Hyun Nie Ahn, Hye Sun Joo, Ji Won Min, Ki Sun Sim, Validation of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in a Korean populati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2013. Vol. 13, No.1, 149-172
- [34] Soo Jung Lee, Hoon Koo Lee (1997) The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trait meta moo scale: The domain explor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97. Vol 11, No.1, 95~116
- [35] Hun Jeong Eun, Tae Wan Kwon, Sun Mi Lee, Tae Hyoung Kim, Mal Rye Choi,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44, No3, 2005.05 303 - 310
- [36] Seung hoon Song (2007). Reliability and Validity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jeon, Korea. DOI: <https://doi.org/10.17315/KJHP.2009.14.1.012>
- [37]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38] Kramer, L. (2016). From trauma to growth: The roles of event centrality,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deliberate rumi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Auburn University. DOI: <https://doi.org/10.1037/trm0000214>
- [39] Calhoun, L. G., & Tedeschi, R. G. (2015)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ractice.
- [40] Hyun Song, Young Soon Lee (2011). The Effects of Hardin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Posttraumatic Growth: Active Coping as a Mediating Variable . *KoreanJournalofCounseling* 2011, Vol.12, No.4, 1231-1246 DOI: <https://doi.org/0.15703/kjc.12.4.201108.1231>

조 영 미(Young-Mi Cho)

[정회원]



- 2020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 전공 (문학 석사)

<관심분야>

대상관계이론,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정 남 운(Nam-Woon Chung)

[정회원]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문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대상관계이론, 애착이론, 전이초점치료, 정신화기반치료/ 애착, 정신화, 대인관계